

## 실전모의고사 제 2 회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20행언나-08

산소가 관여하는 신진대사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노화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은 맥주, 커피, 와인, 찻잎뿐만 아니라 여러 식물에 있다. 폴리페놀의 구성물질 중 약 절반은 항산화 복합물인 플라보노이드이며, 플라보노이드는 플라보놀과 플라바놀이라는 두 항산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찻잎에는 플라바놀에 속하는 카테킨이 있으며, 이 카테킨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다. 카테킨은 여러 항산화 물질로 되어있는데, 이중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차가 우려날 때 쓰고 뚫은맛을 내는 성분인 탄닌이다. 탄닌은 차뿐만 아니라 와인 맛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조 과정에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비산화 차로 분류되는 녹차는 카테킨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산화차인 홍차는 제조하는 동안 일어나는 산화 과정에서 카테킨의 일부가 테아플라빈과 테아루비딘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두 물질이 홍차를 홍차답게 만드는 맛과 색상을 내는 것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 테아플라빈은 홍차를 만들기 위한 산화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물질이다. 테아플라빈은 차의 색깔을 오렌지색 계통의 금색으로 변화시키며 다소 투박하고 뚫은 맛을 내게 한다. 이후에 산화가 더 진행되면 테아루비딘이 나타나는데, 테아루비딘은 차가 좀 더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을 내고 어두운 적색 계통의 갈색을 갖게 한다. 따라서 산화를 길게 하면 할수록 테아루비딘의 양이 많아지고 차는 더욱더 부드럽고 감미로워진다.

중국 홍차가 인도나 스리랑카 홍차보다 대체로 부드러운 것은 산화 과정을 더 오래 하기 때문이다. 즉 홍차의 제조 방법과 조건이 차에 있는 테아플라빈과 테아루비딘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고 차의 색상과 맛의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 ① 테아루비딘의 양에 대한 테아플라빈의 양의 비율은 오렌지색 계통의 금색 홍차보다 어두운 적색 계통의 갈색 홍차에서 더 높다.
- ② 찻잎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가 생성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항산화 작용을 한다.
- ③ 와인과 커피는 플라바놀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가지고 있다.
- ④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녹차보다 홍차에 더 많이 들어있다.
- ⑤ 인도 홍차보다 중국 홍차에 카테킨이 더 많이 들어있다.

문 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20행언나-28

철은 구성 성분과 용도 그리고 단단함의 정도(강도), 질긴 정도(인성), 부드러운 정도(연성), 외부 충격에 깨지지 않고 늘어나는 정도(가단성) 등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순철은 거의 100 % 철로 되어있다. 순철을 가열하면 약 910℃에서 체심입방격자에서 면심입방격자로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축이 일어나고 이 구조는 약 1,400℃까지 유지된다.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구조가 다시 체심입방격자로 바뀌면서 팽창이 일어난다. 순철은 얇게 펴 수 있으며, 용접하기 쉽고, 쉽게 부식되지 않지만, 상온에서 매우 부드러워서 전자기 재료, 촉매, 합금용 등 그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공업적으로 조금 생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철은 순철 자체로 사용되기보다 탄소가 혼합된 형태로 사용된다.

선철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만든 철로서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쉽다. 선철에는 탄소가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순철보다 인성과 가단성이 낮아 주형에 부어 주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압력을 가해 얇게 펴거나 늘리는 가공은 어렵다. 대부분 선철은 강(鋼)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며, 용광로에서 나와 가공되기 전 녹아 있는 상태의 선철을 용선이라고 한다.

제강로에 선철을 넣으면 탄소나 기타 성분이 제거되는 정련 과정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강이 만들어진다. 강은 질기고 외부의 충격에 깨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볼에 달구어서 두들기거나 압연기 사이로 통과시키면서 압력을 가해 여러 형태의 판이나 봉, 관 등의 구조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외부 충격에 견디는 힘이 높아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강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구분한다. 탄소강은 가공과 열처리를 통해 성질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값도 매우 싸기 때문에 실용 재료로써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모든 성질이 우수한 탄소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제강 과정을 거쳐서 용도에 따른 특수강을 만들어 사용한다. 강에 특수한 성질을 주기 위하여 니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등의 특수 원소를 첨가하거나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중 일부를 첨가하여 내열강, 내마모강, 고장력강 등을 만드는데 이것을 특수강이라고 부른다.

- ① 순철은 연성이 높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구조 변화와 수축·팽창이 쉽게 일어난다.
- ② 순철은 선철보다 덜 질기고 외부 충격에 깨지지 않고 늘어나는 정도가 더 낮다.
- ③ 용선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양은 저탄소강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양보다 적다.
- ④ 제강로에서 일어나는 정련 과정은 선철의 인성과 가단성을 높인다.
- ⑤ 고장력강의 탄소 함유량은 고탄소강의 탄소 함유량보다 더 낮다.

문 3.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0행언나-38

인간이 발전시켜온 생각이나 행동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인간이 지금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성적이고 도덕적 존재로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을 때에만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단지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간이 토론을 통해 내리는 판단의 힘과 가치는,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며,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이 없다면 잘못된 생각의 근거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의사 표현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억누르려는 권력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정부일지라도 그럴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흔히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여론을 중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여론의 힘을 빌려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여론에 반(反)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원하는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인류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나머지 사람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의견은 옳은 것일 수도,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자신이 옳다고 가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들어볼 기회까지 봉쇄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그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토론을 통해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보 기>-

- ㄱ. 축적된 화재 사고 기록들에 대해 어떠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고를 잘 예방하였다.
- ㄴ. 정부가 사람들의 의견 표출을 억누르지 않는 사회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더 많이 믿었다.
- ㄷ. 갈릴레오의 저서가 금서가 되어 천문학의 과오를 드러내고 진리를 찾는 기회가 한동안 박탈되었다.

- ①  $\neg$   
②  $\vdash$   
③  $\neg, \perp$   
④  $\perp, \vdash$   
⑤  $\neg, \perp, \vdash$

문 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행언가-28

두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을 생각해 보자. 게임 A에서 철수는 선택1을 선호한다.

<게임 A> 선택1: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00장 중에서  
봉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선택2: 2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0장,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89장, 빈 봉투 1장 중에서 봉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한편 그는 게임 B에서는 선택4를 선호한다.

<게임 B> 선택3: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1장, 빈 봉투 89장 중에서 봉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선택4: 2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0장, 빈 봉투 90장 중에서 봉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그런데 선호와 관련한 원리 K를 생각해 보자. 이는 “기댓값을 계산해 그 값이 더 큰 것을 선호하라.”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철수는 게임 A에서는 선택2를, 게임 B에서는 선택4를 선호해야 한다. 계산을 해보면 그 둘의 기댓값이 다른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선호와 관련해 또 다른 원리 P도 있다. 이는 “두 게임이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면, 두 게임의 선호는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두 게임의 선택에 나오는 “공통 요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은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고 본다. 예를 들어보자. 먼저 선택1은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1장,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89장 중에서 봉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와 같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볼 경우, 이제 선택1과 선택2는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89장’을 공통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빈 봉투 89장’으로 대체하자. 그러면 다음 두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임도 앞의 게임 A와 동일한 구조를 지닌 것이 된다는 것이다.

선택1\*: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1장, 빈 봉투 89장  
중에서 봉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선택2\*: 2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0장, 빈 봉투 90장  
중에서 봉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원리 P는 선택1을 선택2보다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구조를 지닌 이 게임에서도 선택1\*을 선택2\*보다 선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택1\*과 선택2\*는 앞서 나온 게임 B의 선택3 및 선택4와 정확히 같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선택1을 선택2보다 선호하는 철수가 원리 P를 받아들인다면 선택3을 선택4보다 선호해야 한다.

-〈보기〉

- ㄱ. <게임 A>에서 선택1을, <게임 B>에서 선택3을 선호하는 사람은 두 원리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부해야 한다.
- ㄴ. <게임 A>에서 선택2를, <게임 B>에서 선택3을 선호하는 사람은 두 원리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부해야 한다.
- ㄷ. <게임 A>에서 선택2를, <게임 B>에서 선택4를 선호하는 사람은 두 원리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부해야 한다.

- ①  $\neg$   
②  $\vdash$   
③  $\neg, \perp$   
④  $\perp, \vdash$   
⑤  $\neg, \perp, \vdash$

문 5.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행안나-34

갑: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은 동전 c가 있다. 그럼 ‘c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이다.’라는 진술 A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분명 참이다. 하지만 형태, 색, 무게 등 c의 물리적 특징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50%의 확률’에 대응하는 특징을 찾을 수 없다. 도대체 진술 A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을: c를 여러 번 던져 진술 A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c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던지면 일부는 앞면이  
나오고 일부는 뒷면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실제 동전  
던지기 결과를 통해 진술 A의 의미가 결정된다. 즉  
진술 A는 ‘c를 같은 방식으로 던진 실제 결과들 중  
앞면이 나온 빈도가 50%이다.’를 뜻한다.

병: c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던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아무리 비슷하게 던지려 하더라도 언제나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c를 같은 방식으로 던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그 수는 매우 작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밖에 없다면 앞면이 나온 빈도는 0% 또는 100%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우리는 진술 A가 거짓이라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수 없다.

정: c가 같은 방식으로 던져진 실제 세계 사례의 수는 무척 작을 것이다. 하지만 진술 A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유사한 가상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관련된다. 진술 A는 ‘실제 세계와 유사한 가상 상황에서 c를 같은 방식으로 수없이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빈도는 50%에 근접한다.’를 뜻한다.

- ① 갑은 A가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 ② 을은 c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던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병은 그렇지 않다.
- ③ 병은 c를 다양한 방식으로 던진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A의 진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정은 그렇지 않다.
- ④ 병과 정은 실제 세계에서 c를 같은 방식으로 던지는 사례의 수가 매우 작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 ⑤ 갑, 을, 정 모두 c의 물리적 특징을 안다면 A의 뜻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문 6.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행언가-34

2019행언가-34

2016년 1월 출범한 특별업무지원팀 <미래>가 업무적격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꼬박 일 년의 토론과 준비 끝에 출범한 <미래>의 업무가 재평가로 인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부처 내에 널리 퍼진 덕분이다. 물론 가용이나 나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개인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미래>도 업무적격성 재평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미래>가 첫 과제로 수행한 드론 법규 정비 작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나운과 다석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개인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아울러 <미래>의 또 다른 과제였던 나노 기술 지원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라울과 가용 두 사람 중 누구도 개인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기〉-

- ㄱ. <미래>의 또 다른 과제였던 나노 기술 지원 사업이 성공적이었다.
- ㄴ. 다석이 개인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첫 과제로 수행한 <미래>의 드론 범규 정비 작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 ㄷ. <미래>가 첫 과제로 수행한 드론 범규 정비 작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라울은 개인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 ①  $\neg$   
②  $\vdash$   
③  $\neg, \perp$   
④  $\perp, \vdash$   
⑤  $\neg, \perp, \vdash$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7. ~ 문 8.]

갑상선은 목의 아래 쪽에 있는 분비샘으로, ‘T4’로 불리는 티록신과 ‘T3’으로 불리는 트리요드타이로닌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갑상선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체내 대사를 조절한다. 갑상선의 이런 활동은 뇌의 제어를 받는다. 뇌하수체는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을 분비하여 갑상선을 자극함으로써 갑상선호르몬 T4와 T3이 합성, 분비되도록 한다.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다시 뇌하수체에 도달하여 음성 되먹임 작용을 통해 TSH의 분비를 조절하고, 그럼으로써 체내 갑상선호르몬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갑상선 질환은 병리적 검사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혈중 TSH나 T4, T3의 수치 중 어느 것이든 낮으면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한다. 갑상선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중 TSH와 T4의 측정이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시점에 갑상선호르몬의 93%는 T4이고 나머지가 T3이다. 이후 T4의 일부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활력 호르몬으로 알려진 T3으로, 또는 T3의 작용을 방해하여 조직이나 세포 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rT3으로 변환된다. 체내에 rT3이 많아지면 T3의 작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TSH 수치가 정상이면서도 갑상선기능저하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량 수준을 알려주는 TSH 수치의 측정만으로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어렵다. ㉠ 때문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뇌하수체의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의 유입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갑상선호르몬 생산이 줄어들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T3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전형적인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셀레늄 섭취를 늘림으로써 rT3의 수치를 낮춰 T3의 생산과 기능을 진작할 수 있다. 술, 담배,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으로 LT4가 있는데,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T4와 같은 작용을 하도록 투입되는 호르몬 공급제다. 호르몬 공급제를 복용할 때 흡수 장애가 발생하면 투약 효과가 저하되므로 알맞은 복용법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 7. 위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2020행언나-39
- ① TSH 수치를 측정하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양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 ②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의 경우 체내의 T3 양은 전체 갑상선 호르몬의 7% 미만이다.
  - ③ 셀레늄 섭취를 늘리면 T3 수치가 저하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뇌하수체의 TSH 분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특정 호르몬의 기능을 하는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해당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 문 8. 위 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행언나-40
- ① TSH 수치만으로는 rT3의 양이나 효과를 가늠할 수 없기
  - ② rT3의 작용으로 T3의 생성이 억제되면서 T4의 상대적 비중이 왜곡될 수 있기
  - ③ TSH 수치가 정상이 아니어도 rT3의 작용으로 T3과 T4의 농도가 정상 범위일 수 있기
  - ④ TSH 수치를 토대로 음성 되먹임 원리를 응용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을 알 수 있기
  - ⑤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농도 등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TSH 측정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문 9. 다음 <표>는 유통업체 ‘가’ ~ ‘바’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17

<표> 유통업체 ‘가’ ~ ‘바’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현황  
(단위: 명, %)

| 유통업체 | 사업장 | 업종  | 비정규직<br>간접고용 인원 | 비정규직<br>간접고용 비율 |
|------|-----|-----|-----------------|-----------------|
| 가    | A   | 백화점 | 3,408           | 74.9            |
| 나    | B   | 백화점 | 209             | 31.3            |
| 다    | C   | 백화점 | 2,149           | 36.6            |
|      | D   | 백화점 | 231             | 39.9            |
|      | E   | 마트  | 8,603           | 19.6            |
| 라    | F   | 백화점 | 146             | 34.3            |
|      | G   | 마트  | 682             | 34.4            |
| 마    | H   | 마트  | 1,553           | 90.4            |
| 바    | I   | 마트  | 1,612           | 48.7            |
|      | J   | 마트  | 2,168           | 33.6            |
| 전체   |     |     | 20,761          | 29.9            |

※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 = 
$$\frac{\text{비정규직 간접고용 인원}}{\text{비정규직 간접고용 인원} + \text{비정규직 직접고용 인원}} \times 100$$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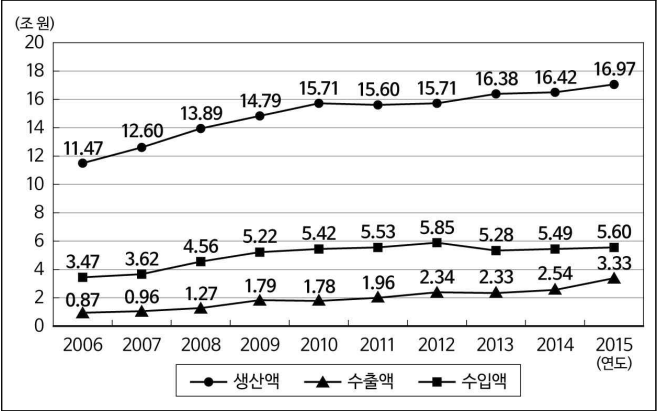
- ㄱ. 업종별 비정규직 간접고용 총인원은 마트가 백화점의 2배 이상이다.
- ㄴ. 비정규직 직접고용 인원은 A가 H의 10배 이상이다.
- ㄷ.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장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인원은 다른 9개 사업장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인원의 합보다 많다.
- ㄹ. 유통업체별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은 ‘다’가 ‘라’보다 높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문 10. 다음 <그림>과 <표>는 연도별 의약품 국내시장 현황과 세계 지역별 의약품 시장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자가-12

<그림> 2006 ~ 2015년 의약품 국내시장 현황



※ 국내시장규모 = 생산액 - 수출액 + 수입액

<표> 2013 ~ 2014년 세계 지역별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

| 지역 \ 연도 구분           | 2013  |       | 2014  |       |
|----------------------|-------|-------|-------|-------|
|                      | 시장규모  | 비중    | 시장규모  | 비중    |
| 북미                   | 362.8 | 38.3  | 405.6 | 39.5  |
| 유럽                   | 219.8 | ( )   | 228.8 | 22.3  |
| 아시아(일본 제외), 호주, 아프리카 | 182.6 | 19.3  | 199.2 | 19.4  |
| 일본                   | 80.5  | 8.5   | 81.6  | 7.9   |
| 라틴 아메리카              | 64.5  | ( )   | 72.1  | 7.0   |
| 기타                   | 37.4  | 3.9   | 39.9  | 3.9   |
| 전체                   | 947.6 | 100.0 | ( )   | 100.0 |

<보 기>

- ㄱ. 2013년 의약품 국내시장규모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ㄴ. 2008 ~ 2015년 동안 의약품 국내시장규모는 전년대비 매년 증가하였다.
- ㄷ. 2014년 의약품 세계 전체 시장규모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ㄹ. 2014년 의약품 세계 전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1. 다음 <보고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2020행자나-05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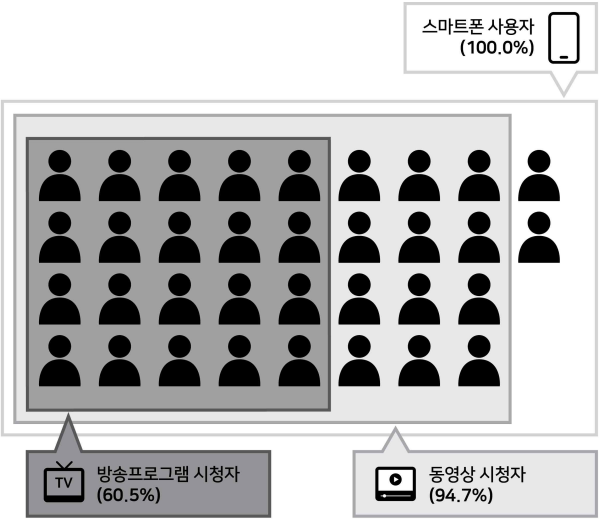
스마트폰 사용자 3,427만 명 중 월 1회 이상 동영상을 시청한 사용자는 3,246만 명이고, 동영상 시청자 중 월 1회 이상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사용자는 2,075만 명이었다. 월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은 월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10 % 이상이었으나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은 월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의 10 % 미만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자 중 동영상 시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90 % 이상인 반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방송프로그램 시청자의 비중은 ‘20대’ ~ ‘40대’는 60 %를 상회하지만 ‘60대 이상’은 50 %에 미치지 못해 연령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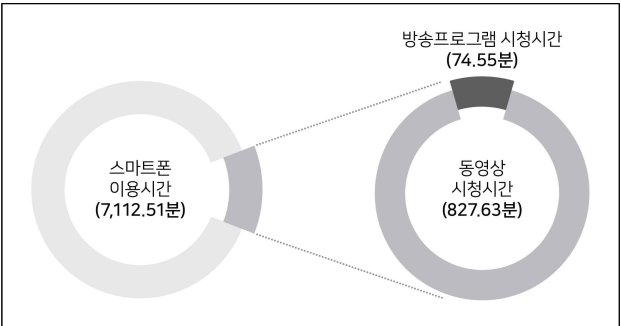
월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길고,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의 시청시간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9분 이상 길고,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시청시간이 가장 길었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의 3배 이상이다.

월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오락’이 전체의 45 % 이상으로 가장 길고, 그 뒤를 이어 ‘드라마’, ‘스포츠’, ‘보도’ 순이었다.

① 스마트폰 사용자 중 월 1회 이상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비율



② 스마트폰 사용자의 월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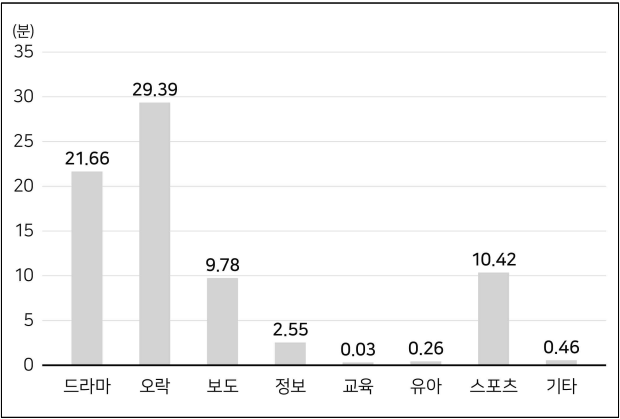


③ 성별, 연령대별 스마트폰 사용자 중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비율

(단위: %)

| 구분     | 성별   |      | 연령대    |      |      |      |      |        |
|--------|------|------|--------|------|------|------|------|--------|
|        | 남성   | 여성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동영상    | 94.7 | 94.7 | 97.0   | 95.3 | 95.6 | 95.4 | 93.1 | 92.0   |
| 방송프로그램 | 59.1 | 62.1 | 52.3   | 68.0 | 67.2 | 65.6 | 56.0 | 44.5   |

④ 방송프로그램 장르별 월평균 시청시간



⑤ 성별, 연령대별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월평균 시청시간

(단위: 분)

| 구분     | 성별    |       | 연령대     |         |       |       |       |        |
|--------|-------|-------|---------|---------|-------|-------|-------|--------|
|        | 남성    | 여성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동영상    | 901.0 | 746.4 | 1,917.5 | 1,371.2 | 671.0 | 589.0 | 496.4 | 438.0  |
| 방송프로그램 | 70.0  | 79.6  | 50.7    | 120.5   | 75.5  | 82.9  | 60.1  | 38.6   |

문 12. 다음 <표>는 2019년 3월 사회인 축구리그 경기일별 누적승점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행자나-06

<표> 경기일별 경기 후 누적승점  
(단위: 점)

| 팀<br>경기일(요일) | A  | B  | C  | D  | E  | F  |
|--------------|----|----|----|----|----|----|
| 9일(토)        | 3  | 0  | 0  | 3  | 1  | 1  |
| 12일(화)       | 6  | 1  | 0  | 3  | 2  | 4  |
| 14일(목)       | 7  | 2  | 3  | 4  | 2  | 5  |
| 16일(토)       | 8  | 2  | 3  | 7  | 3  | 8  |
| 19일(화)       | 8  | 5  | 3  | 8  | 4  | 11 |
| 21일(목)       | 8  | 8  | 4  | 9  | 7  | 11 |
| 23일(토)       | 9  | 9  | 5  | 10 | 8  | 12 |
| 26일(화)       | 9  | 12 | 5  | 13 | 11 | 12 |
| 28일(목)       | 10 | 12 | 8  | 16 | 12 | 12 |
| 30일(토)       | 11 | 12 | 11 | 16 | 15 | 13 |

<조 건>

- 팀별로 다른 팀과 2번씩 경기한다.
- 경기일별로 세 경기가 진행된다.
- 경기일별로 팀당 한 경기만 진행한다.
- 승리팀은 승점 3점을 얻고, 패배팀은 승점 0점을 얻는다.
- 무승부일 경우 두 팀 모두 각각 승점 1점을 얻는다.
- 3월 30일 경기 후 누적승점이 가장 높은 팀이 우승팀이 된다.

- ① A팀과 C팀은 승리한 횟수가 같다.
- ② B팀은 화요일에는 패배한 적이 없다.
- ③ 모든 팀이 같은 경기일에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다.
- ④ C팀은 3월 14일에 E팀과 경기하여 승리하였다.
- ⑤ 3월 30일 경기결과가 달라져도 우승팀은 바뀌지 않는다.

문 13. 다음 <표>는 1996 ~ 2015년 생명공학기술의 기술분야별 특허건수와 점유율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 ~ D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행자가-08

<표> 1996 ~ 2015년 생명공학기술의 기술분야별 특허건수와 점유율  
(단위: 건, %)

| 기술분야     | 구분 | 전세계 특허건수 | 미국 점유율 | 한국 특허건수 | 한국 점유율 |
|----------|----|----------|--------|---------|--------|
| 생물공정기술   |    | 75,823   | 36.8   | 4,701   | 6.2    |
| A        |    | 27,252   | 47.6   | 1,880   | ( )    |
| 생물자원탐색기술 |    | 39,215   | 26.1   | 6,274   | 16.0   |
| B        |    | 170,855  | 45.6   | 7,518   | ( )    |
| 생물농약개발기술 |    | 8,122    | 42.8   | 560     | 6.9    |
| C        |    | 20,849   | 8.1    | 4,295   | ( )    |
| 단백질체기술   |    | 68,342   | 35.1   | 3,622   | 5.3    |
| D        |    | 26,495   | 16.8   | 7,127   | ( )    |

※ 해당국의 점유율(%) =  $\frac{\text{해당국의 특허건수}}{\text{전세계 특허건수}} \times 100$

<조 건>

- ‘발효식품개발기술’과 ‘환경생물공학기술’은 미국보다 한국의 점유율이 높다.
- ‘동식물세포배양기술’에 대한 미국 점유율은 ‘생물농약 개발기술’에 대한 미국 점유율보다 높다.
- ‘유전체기술’에 대한 한국 점유율과 미국 점유율의 차이는 41%p 이상이다.
- ‘환경생물공학기술’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은 25% 이상이다.

A

B

C

D

- ① 동식물세포배양기술 유전체기술 발효식품개발기술 환경생물공학기술
- ② 동식물세포배양기술 유전체기술 환경생물공학기술 발효식품개발기술
- ③ 발효식품개발기술 유전체기술 동식물세포배양기술 환경생물공학기술
- ④ 유전체기술 동식물세포배양기술 발효식품개발기술 환경생물공학기술
- ⑤ 유전체기술 동식물세포배양기술 환경생물공학기술 발효식품개발기술

문 14. 다음 <표>는 2015 ~ 2018년 A ~ D국 초흡수성 수지의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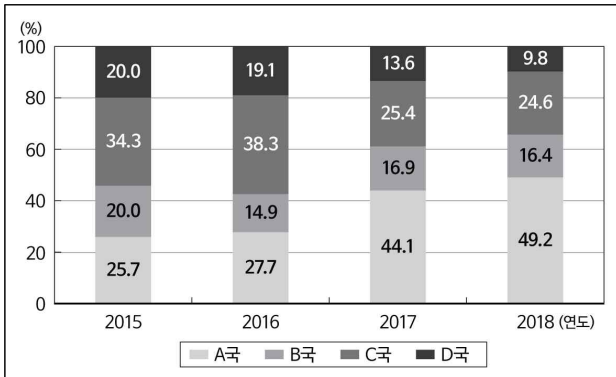
2019행자가-24

<표> 2015 ~ 2018년 초흡수성 수지의 특허출원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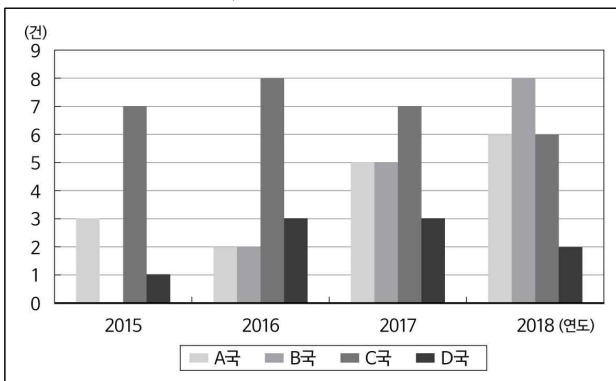
| 국가 | 연도<br>기술분야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
|----|------------|------|------|------|------|-----|
|    |            |      |      |      |      |     |
| A  | 조성물        | 5    | 8    | 11   | 11   | 35  |
|    | 공정         | 3    | 2    | 5    | 6    | 16  |
|    | 친환경        | 1    | 3    | 10   | 13   | 27  |
| B  | 조성물        | 4    | 4    | 2    | 1    | 11  |
|    | 공정         | 0    | 2    | 5    | 8    | 15  |
|    | 친환경        | 3    | 1    | 3    | 1    | 8   |
| C  | 조성물        | 2    | 5    | 5    | 6    | 18  |
|    | 공정         | 7    | 8    | 7    | 6    | 28  |
|    | 친환경        | 3    | 5    | 3    | 3    | 14  |
| D  | 조성물        | 1    | 2    | 1    | 2    | 6   |
|    | 공정         | 1    | 3    | 3    | 2    | 9   |
|    | 친환경        | 5    | 4    | 4    | 2    | 15  |
| 계  |            | 35   | 47   | 59   | 61   | 202 |

※ 기술분야는 조성물, 공정, 친환경으로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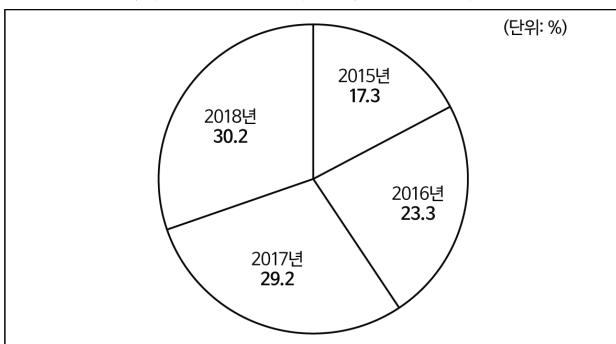
① 2015 ~ 2018년 국가별 초흡수성 수지의 특허출원 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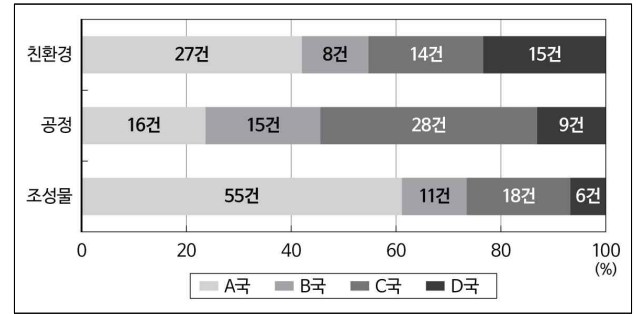
② 공정 기술분야의 국가별, 연도별 초흡수성 수지의 특허출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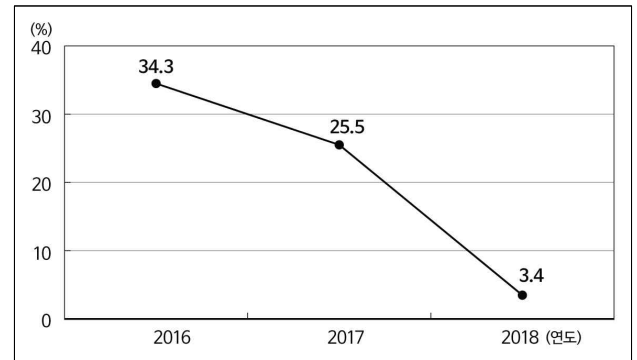
③ A ~ D국 전체의 초흡수성 수지 특허출원 건수의 연도별 구성비



④ 2015 ~ 2018년 기술분야별 초흡수성 수지 특허출원 건수 합에 대한 국가별 비중



⑤ A ~ D국 전체의 초흡수성 수지 특허출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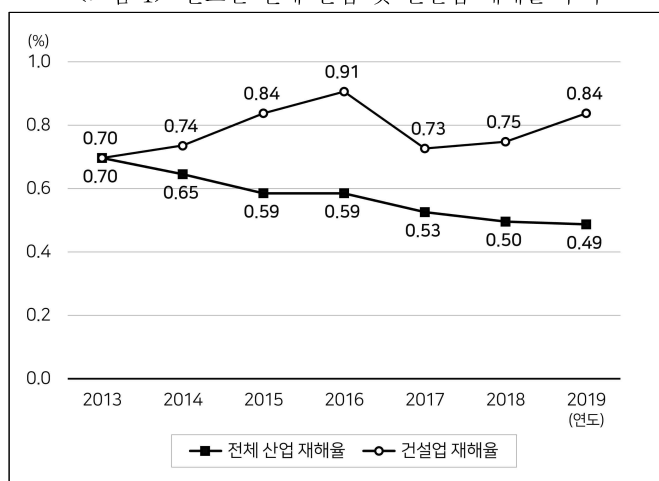
※ 다음 <표>와 <그림>은 2013 ~ 2019년 ‘갑’국의 건설업 재해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5. ~ 문 16.]

〈표〉 연도별 건설업 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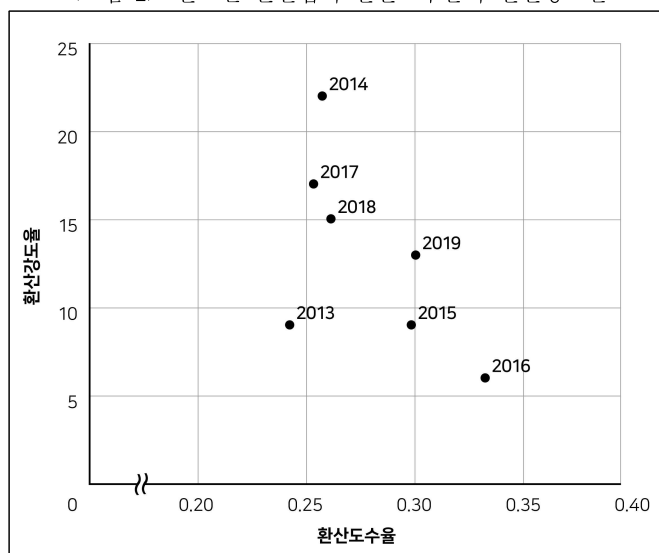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 근로자 수     | 채해자 수  | 사망자 수 |
|------|-----------|--------|-------|
| 2013 | 3,200,645 | 22,405 | 611   |
| 2014 | 3,087,131 | 22,845 | 621   |
| 2015 | 2,776,587 | 23,323 | 496   |
| 2016 | 2,586,832 | ( )    | 667   |
| 2017 | 3,249,687 | 23,723 | 486   |
| 2018 | 3,358,813 | ( )    | 493   |
| 2019 | 3,152,859 | 26,484 | 554   |

〈그림 1〉 연도별 전체 산업 및 건설업 재해율 추이


$$\text{※ 재해율(\%)} = \frac{\text{재해자 수}}{\text{근로자 수}} \times 100$$

〈그림 2〉 연도별 건설업의 환산도수율과 환산강도율


$$\text{※ 1) 환산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총 근로시간}} \times 100,000$$
$$2) \text{ 환산강도율} = \frac{\text{재해손실일수}}{\text{총 근로시간}} \times 100,000$$

문 15. 위 <표>와 <그림>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행자나-33

- ① 건설업 재해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 ② 전체 산업 재해율과 건설업 재해율의 차이가 가장 큰 해는 2016년이다.
- ③ 2020년 건설업 재해자 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다면, 건설업 재해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할 것이다.
- ④ 2013년 건설업 근로자 수가 전체 산업 근로자 수의 20%라면, 전체 산업 재해자 수는 건설업 재해자 수의 4배이다.
- ⑤ 건설업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건설업 환산강도율도 가장 높다.

문 16. 위 <표>와 <그림>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재해건당 재해손실일수가 가장 큰 연도와 가장 작은 연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20행자나-34

|   | 가장 큰 연도 | 가장 작은 연도 |
|---|---------|----------|
| ① | 2013년   | 2014년    |
| ② | 2013년   | 2016년    |
| ③ | 2014년   | 2013년    |
| ④ | 2014년   | 2016년    |
| ⑤ | 2016년   | 2014년    |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공장에서 4월 1일과 4월 2일에  
작업한 최소 시간의 합은?

2020행상나-30

○○공장은 작업반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 X와 제품 Y를 생산한다. 다음 표는 각 작업반이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각 제품의 수량을 나타낸다. 각 작업반은 X와 Y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고 작업 속도는 일정하다.

〈작업반별 시간당 생산량〉

(단위: 개)

|       |   |   |
|-------|---|---|
| 구분    | X | Y |
| 작업반 A | 2 | 3 |
| 작업반 B | 1 | 3 |

○ ○공장은 4월 1일 오전 9시에 X 24개와 Y 18개를 주문받았으며, 4월 2일에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주문을 받았다. 당일 주문받은 물량은 당일에 모두 생산하였다.

4월 1일에는 작업 여건상 두 작업반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해야 했지만, 4월 2일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었다. 두 작업반은 매일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며, 작업 시간은 작업 시작 시점부터 주문받은 물량 생산 완료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① 19시간                      ② 20시간  
③ 21시간                      ④ 22시간  
⑤ 23시간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에 들어갈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2020칠상모-08

올림픽은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대회이다. 제1회 하계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동계 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두 대회의 차수(次數)를 계산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올림픽 사이의 기간인 4년을 올림피아드(Olympiad)라 부르는데, 하계 올림픽의 차수는 올림피아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전 대회부터 하나의 올림피아드만큼 시간이 흐르면 올림픽 대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게 된다. 대회가 개최되지 못해도 올림피아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회 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하계 올림픽은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세 차례(1916년, 1940년, 1944년) 개최되지 못하였는데,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 다음으로 1920년에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개최된 올림픽은 제7회 대회였다. 마찬가지로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다음으로 개최된 1948년 런던 올림픽은 제( ㉠ )회 대회였다. 반면에 동계 올림픽의 차수는 실제로 열린 대회만으로 정해진다. 동계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두 차례(1940년, 1944년) 열리지 못하였는데, 1936년 제4회 동계 올림픽 다음 대회인 1948년 동계 올림픽은 제5회 대회였다. 이후 2020년 전까지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은 적은 없다.

1992년까지 동계·하계 올림픽은 같은 해 치러졌으나 그 이후로는 IOC 결정에 따라 분리되어 2년 격차로 개최되었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대회는 이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하계 올림픽에 2년 앞서 치러진 대회였다. 이를 기점으로 동계 올림픽은 지금까지 4년 주기로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여,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과 1992년 제( ㉡ )회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 각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      |    |
|------|----|
| ㉠    | ㉡  |
| ① 12 | 16 |
| ② 12 | 21 |
| ③ 14 | 16 |
| ④ 14 | 19 |
| ⑤ 14 | 21 |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2019행상가-16

A구와 B구로 이루어진 신도시 甲시에는 어린이집과 복지회관이 없다. 이에 甲시는 60억 원의 건축 예산을 사용하여 아래 <건축비와 만족도>와 <조건> 하에서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도록 어린이집과 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비와 만족도>

| 지역 | 시설 종류 | 건축비(억 원) | 만족도 |
|----|-------|----------|-----|
| A구 | 어린이집  | 20       | 35  |
|    | 복지회관  | 15       | 30  |
| B구 | 어린이집  | 15       | 40  |
|    | 복지회관  | 20       | 50  |

<조 건>

-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신축한다.
- 시민 만족도는 각 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합으로 계산한다.
- 각 구에는 최소 1개의 시설을 신축해야 한다.
- 하나의 구에 동일 종류의 시설을 3개 이상 신축할 수 없다.
- 하나의 구에 동일 종류의 시설을 2개 신축할 경우, 그 시설 중 한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 하락한다.

- ① 예산은 모두 사용될 것이다.
- ② A구에는 어린이집이 신축될 것이다.
- ③ B구에는 2개의 시설이 신축될 것이다.
- ④ 甲시에 신축되는 시설의 수는 4개일 것이다.
- ⑤ <조건> 5)가 없더라도 신축되는 시설의 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과 이때 채굴한 원석의 개수로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원석은 정수 단위로 채굴한다)

2019행상가-18

보석 가공업자인 甲은 원석을 채굴하여 목걸이용 보석과 반지용 보석으로 1차 가공한다. 원석 1개를 1차 가공하면 목걸이용 보석 60개와 반지용 보석 40개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보석들은 1차 가공 직후 판매할 수 있지만, 2차 가공을 거쳐서 판매할 수도 있다. 목걸이용 보석 1개는 2차 가공을 통해 목걸이 1개로, 반지용 보석 1개는 2차 가공을 통해 반지 1개로 생산된다. 甲은 보석 용도별로 2차 가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2차 가공하여 판매할 때의 이윤이 2차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할 때의 이윤보다 큰 경우에만 2차 가공하여 판매한다.

<생산단계별 비용 및 판매가격>

- 원석 채굴: 최초에 원석 1개를 채굴할 때에는 3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두 번째 채굴 이후부터는 원석 1개당 채굴 비용이 100만 원씩 증가한다. 즉, 두 번째 원석의 채굴 비용은 400만 원이 되어 원석 2개의 총 채굴 비용은 700만 원이다.
- 1차 가공: 원석의 1차 가공 비용은 개당 250만 원이며, 목걸이용 보석은 개당 7만 원에, 반지용 보석은 개당 5만 원에 판매된다.
- 2차 가공: 목걸이용 보석의 2차 가공 비용은 개당 40만 원이며, 목걸이는 개당 50만 원에 판매된다. 반지용 보석의 2차 가공 비용은 개당 20만 원이며, 반지는 개당 15만 원에 판매된다.

- 최대 이윤

원석의 개수
- ① 400만 원

2개
- ② 400만 원

3개
- ③ 450만 원

3개
- ④ 450만 원

4개
- ⑤ 500만 원

4개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지불할 관광비용은?

2019행상가-28

- 甲은 경복궁에서 시작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타워 전망대,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관광하려 한다. ‘경복궁 → 서울시립미술관’은 도보로,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타워 전망대’ 및 ‘서울타워 전망대 → 국립중앙박물관’은 각각 지하철로 이동해야 한다.
- 입장료 및 지하철 요금

| 경복궁    | 서울시립 미술관 | 서울타워 전망대 | 국립중앙 박물관 | 지하철    |
|--------|----------|----------|----------|--------|
| 1,000원 | 5,000원   | 10,000원  | 1,000원   | 1,000원 |

※ 지하철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탑승할 때마다 일정하게 지불하며, 도보 이동시에는 별도 비용 없음

- 관광비용은 입장료, 지하철 요금, 상품가격의 합산액이다.
- 甲은 관광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甲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 상품        | 가격     | 혜택      |           |          |          |       |
|-----------|--------|---------|-----------|----------|----------|-------|
|           |        | 경복궁     | 서울 시립 미술관 | 서울타워 전망대 | 국립중앙 박물관 | 지하철   |
| 스마트 교통 카드 | 1,000원 | —       | —         | 50 % 할인  | —        | 당일 무료 |
| 시티 투어A    | 3,000원 | 30 % 할인 | 30 % 할인   | 30 % 할인  | 30 % 할인  | 당일 무료 |
| 시티 투어B    | 5,000원 | 무료      | —         | 무료       | 무료       | —     |

- ① 11,000원

② 12,000원
- ③ 13,000원

④ 14,900원
- ⑤ 19,000원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상나-16

- A청은 업무능력 평가를 통해 3개 부서(甲 ~ 丙) 중 평가항목별 최종점수의 합계가 높은 2개 부서를 포상한다.
- 4명의 평가위원(가 ~ 라)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5개 등급(최상, 상, 중, 하, 최하)으로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평가항목의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
|-------|----|----|----|----|----|
| 문제인식  | 30 | 24 | 18 | 12 | 6  |
| 실현가능성 | 30 | 24 | 18 | 12 | 6  |
| 성장전략  | 40 | 32 | 24 | 16 | 8  |

- 평가항목별 최종점수는 아래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각각 하나씩만 차감한다.

$$\frac{\text{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평가위원 | 점수   |       |      |
|----|------|------|-------|------|
|    |      | 문제인식 | 실현가능성 | 성장전략 |
| 甲  | 가    | 30   | 24    | 24   |
|    | 나    | 24   | 30    | 24   |
|    | 다    | 30   | 18    | 40   |
|    | 라    | ㉠    | 12    | 32   |
| 乙  | 가    | 6    | 24    | 32   |
|    | 나    | 12   | 24    | ㉡    |
|    | 다    | 24   | 18    | 16   |
|    | 라    | 24   | 18    | 32   |
| 丙  | 가    | 12   | 30    | ㉢    |
|    | 나    | 24   | 24    | 24   |
|    | 다    | 18   | 12    | 40   |
|    | 라    | 30   | 6     | 24   |

—<보 기>—

- ㄱ. ㉠값에 관계없이 문제인식 평가항목의 최종점수는 甲이 제일 높다.
- ㄴ. ㉡ = ㉢ > 16이라면, 성장전략 평가항목의 최종점수는 乙이 丙보다 낮지 않다.
- ㄷ. ㉠ = 18, ㉡ = 24, ㉢ = 24일 때, 포상을 받게 되는 부서는 甲과 丙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창렬이가 결제할 최소 금액은?

2020행상나-08

- 창렬이는 이번 달에 인터넷 먼세점에서 가방, 영양제, 목베개를 각 1개씩 구매한다. 각 물품의 정가와 이번 달 개별 물품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정가(달러) | 이번 달 할인율(%) |
|-----|--------|-------------|
| 가방  | 150    | 10          |
| 영양제 | 100    | 30          |
| 목베개 | 50     | 10          |

- 이번 달 개별 물품의 할인율은 자동 적용된다.
- 이번 달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결제 금액에 대해 20%를 일괄적으로 할인받는 ‘이달의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달은 쇼핑 행사가 열려, 결제해야 할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할 때 ‘20,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할인은 ‘개별 물품 할인 → 이달의 할인 쿠폰 → 20,000원 추가 할인 쿠폰’ 순서로 적용된다.
- 환율은 1달러 당 1,000원이다.

- ① 180,000원
- ② 189,000원
- ③ 196,000원
- ④ 200,000원
- ⑤ 210,000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24. ~ 문 25.]

제00조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의 도주 위험성에 따라 계호(戒護)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제00조 교도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교도관의 사무처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수형자의 집건의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은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은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은 월 5회, 중경비처우급은 월 4회로 한다.

② 집건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③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집건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연극·영화·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형기(刑期)가 3년 이상이고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이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

제00조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계호(戒護): 경계하여 지킴

문 24.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소장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처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행상가-39**

<보 기>

- ㄱ. 교도관의 사무처리 업무 보조
- ㄴ. 교도소 밖 사회봉사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
- ㄷ. 교도소 내 교육실에서의 월 1회 토론회 참여
- ㄹ.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문 25.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소장의 조치로 적법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상가-40**

<보 기>

- ㄱ. 과거 범죄 횟수가 1회이며, 7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 甲에게 소장은 교도소 내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ㄴ. 과거 범죄 횟수가 1회이며, 5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10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乙에게 소장은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취업지원 처우를 받도록 하였다.
- ㄷ. 과거 범죄 횟수가 3회이며, 5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2개월인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丙에게 소장은 교도소 밖의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ㄹ. 초범자로서 3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8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丁을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교도소 밖의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